

2011. 3. 22

12.5 기획 기간 중국 경제 및 철강산업의 변화와 시사점

북경사무소

정철호 外

Executive Summary

12.5 기획 기간 중국 경제 및 철강산업의 변화와 시사점

- 양적 고도성장 가운데 구조적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12.5 기획 기간에 발전방식을 ‘지속가능성장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.
 - 30년간 연평균 10% 고성장해 왔으나, 지역간,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투자 및 수출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됨.
 - 발전방식 전환을 위해 내수 확대와 녹색성장을 중점 추진하며, 내수 확대의 정책 수단으로는 ①소득분배 개혁, ②지역개발, ③민간투자 촉진을, 녹색성장의 정책 수단으로는 ①기존 산업 업그레이드, ②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함.
-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은 완만하게 진전될 전망이며, 성장을 하락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8%를 상회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.
 - 민간소비 증가, 개발투자 지속 등 고성장 지속 요인이 존재하는데다, 재정 및 금리 등 정책 수단에서 거시경제 조절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.
 - 특히 고용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성장방식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됨.
- 철강산업은 철강사 난립 및 중복과잉 투자로 낮은 이익률을 기록 중이며, 12.5 기획 기간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가 핵심 정책 방향임.
 - M&A 등을 통해 10대 철강사 비중을 '15년 말까지 60%로 늘리고, 연해 및 연강 생산 비중을 40%까지 끌어올릴 계획임.
 - 화북 및 동북지역에서는 능력 확대를 억제하고, 중남 및 화동지역에는 연해 생산기지를 건설하며, 중서부지역에서는 지역 철강수요 충족을 중시한다는 방침임.
 - 한편 중국 주요 철강사들은 12.5 기획 기간 대형화와 기술혁신, 원료자급률 제고, 사업다각화 등을 중시하는 발전 목표를 수립하였음.
- 중국 철강사들의 도전 등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며, 중국의 변화가 주는 기회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.
 - 중국산 제품에 대비한 국내외 시장 방어가 시급한 과제이며, ‘Break-through’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중국 수요가들과의 제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- 중국의 지역별 발전 특성을 감안한 단계적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 7대 신흥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사업기회의 발굴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

Contents

목 차

I. 12·5 규획과 중국 경제의 변화	1
II. 12·5 규획과 중국 철강산업의 변화	5
III. 종합 및 시사점	11

I. 12.5 규획과 중국 경제의 변화

1. 12.5 규획의 수립 배경

□ 중국은 양적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,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함.

-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연평균 10%의 고성장을 기록하였고, 2010년 GDP 5.7조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G2로 등극함.
- '20년까지 GDP 4조 달러, 1인당 GDP 3천 달러에 도달한다는 중장기 목표(소강사회 건설)을 10년 이상 빠르게 달성함.
- 하지만 투자·수출 중심 & 동부연해 중심의 불균형 성장방식으로 인해 양극화, 해외 의존도 심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.
 - 소득불평등지수(지니계수): '78년 0.16→'09년 0.47
 - 도농간 소득격차: '78년 2.56대 1→'09년 3.3대 1
 - 수출의존도: 5.9%('80년)→31.6%('08년). 미국, 일본은 10% 전후
 - 철광석수입(세계 비중): '00년 7천만 톤(15.4%)→'09년 6.4억 톤(61.0%)

<그림 1> 과거 5개년 계획의 내용과 성과

	<u>9.5계획('96~'00)</u>	<u>10.5계획('01~'05)</u>	<u>11.5규획('06~'10)</u>
성장률 목표	8.0%	7.0%	7.5%
실적	8.6%	9.8%	11.4%
수립 시점 당면 문제	▪ 국유기업 경영악화 ▪ 농업, 농민공 문제 ▪ 소득분배 격차	▪ 산업구조 불합리 ▪ 지역간, 도농간 불균형 ▪ 생태환경 악화 및 자원부족	▪ 중복 과잉투자 ▪ 지역간, 도농간 격차 확대 ▪ 환경오염 및 에너지 과소비
대외 환경	▪ 동아시아 금융위기	▪ 세계경제 호황, WTO 가입	▪ 세계금융위기

자료원: 포스코경영연구소(2011)

- ☞ 중국 노사분쟁 건수 급증('07년 36만→'08년 69만→'09년 68만), 자스민 혁명의 확산 우려 등 사회 동요 가능성 증대로 정권유지 및 사회통제를 위한 적극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임.

(참고) 12.5 규획 이란?

- 향후 5년('11~'15)간의 정치·경제·사회 부문의 정부정책 방향

- 중국 정부, 기업, 전국민의 활동 지침 제시

* 11.5규획('06~)부터 '직접 개입방식(계획, Plan)'에서 '방향 (규획, Program) 제시'로 변경

[12.5규획 추진 경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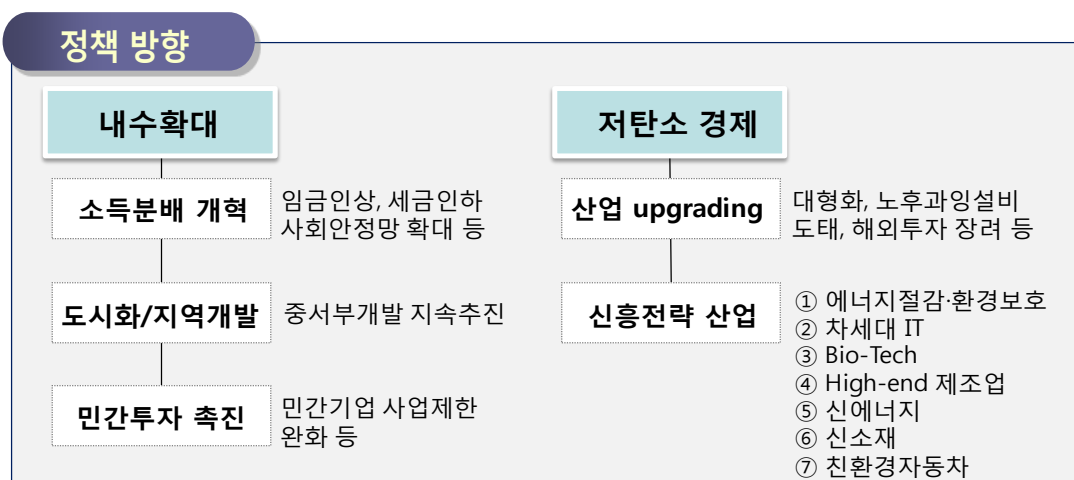
- ✓ 2010. 10월, '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'에서 방향 제시
- ✓ 2011.3.3~3.14 양회(전인대·정협)에서 확정

2. 12.5 규획의 주요 내용

- 12.5 규획은 발전방식을 '지속가능성장'으로 전환할 것을 추구하며 ① 내수 확대, ②녹색성장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함.

- 소득분배 개혁, 도시화/지역개발 지속,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가계소득을 2배로 늘려 민간소비 비중을 확대할 방침임.
-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, 신예화를 추진하고 7대 신흥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임.

<그림 2> 12.5 규획 정책방향 및 목표



정책 목표	12.5 규획	11.5 규획	
		목표	실적
경제성장률	7%	7.5%	11.4%
소득증가율	7%	5%	9.7%(도시) 8.9%(농촌)
도시화율	51.5%*	-	47.5%**
R&D/GDP	2.2%	1.3~2.0%	1.8%

자료원: 국무원 국정보고서, 주: *는 2015년, **는 2010년 수치

3. 12.5 규획 기간, 중국 경제 전망

□ 성장방식의 전환에 따른 성장세 둔화에 불구하고 향후 5년 연평균 8%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성장률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지속 요인이 다수 존재함.

- (고성장 지속 요인) ①민간소비, 서비스 장려정책에 따른 소비 증가, ②민간경제 비중 증가로 인한 생산성 상승, ③동북진흥·중서부 개발 정책·도시화 추진으로 개발투자 수요 장기간 존재
- (성장률 하락 요인) ①세계 경제 부진으로 수출 기여도 하락, ②투자과잉으로 조정 불가피, ③'slower but better growth' 정책 기조에 따른 성장세 둔화

○ 정부의 정책 수단 여지 감안 시 거시경제 조절 능력 보유함.

- ① 외환 보유액: '10년말 현재 \$2.85조로 전세계의 30% 차지
- ② 금리인하 여지: 3개월 금리 中 3.0%, 美 0.25%, 日 0.17%
- ③ 재정여력: 재정수지/GDP 中 -2.2%, 美 -9.0%, 日 -7.5%
- ④ 시장 통제력: 은행대출 및 외환시장 규제 등 경제 통제력 보유

<표 1> 국내외 기관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

기관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
Global Insight	10.5%	8.6%	8.1%	8.6%	8.8%	8.5%
국무원		10.0%	10.5%	9.0%	9.0%	9.0%

자료원: Global Insight, 국무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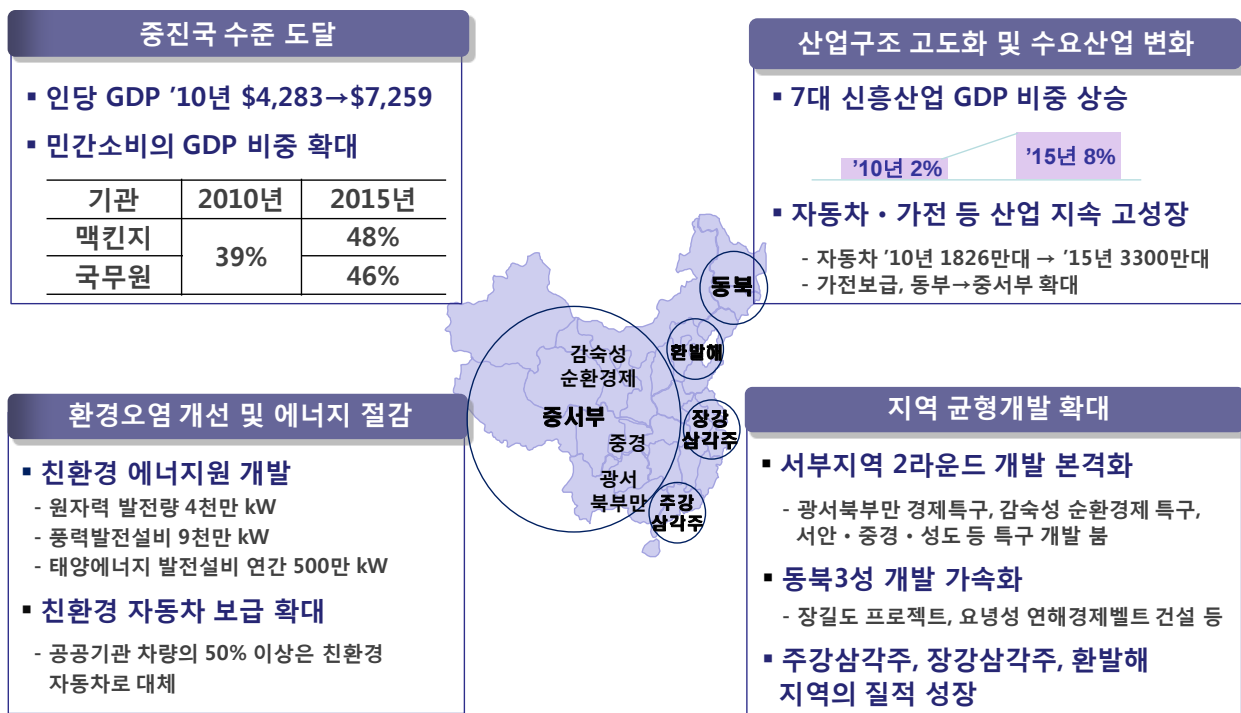
□ 질적 성장 전환은 점진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.

- 고용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성장방식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.
- 사회과학원은 GDP 1% 성장이 약 80만 명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하는데, 매년 600만 명 이상의(2010년 630만 명) 대학 졸업 취업 희망자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8~9%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함.
- 2011년 성장 목표도 고용 문제 등을 감안하여 8%로 설정한 바 있음.

4. 2015년 중국 경제 및 사회 모습

- 향후 5년 중국은 ①경제규모, ②산업구조 및 수요산업 ③환경오염 개선, ④지역 균형개발 면에서 변화가 예상됨.

<그림 3> 향후 5년 중국 변화 전망



☞ 권역별로 차별화된 단계적 발전 예상

자료원: 포스코경영연구소(2011)

- (경제 규모) 1인당 GDP는 7천 달러를 초과하여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'10년 9.2%에서 '15년 13.3%로 증가, 미국과의 GDP 격차도 2.6배에서 1.6배로 축소될 전망이다.
- (산업구조 및 수요산업 변화) 중국 정부는 7대 신흥산업의 GDP 비중을 '10년 2%에서 '15년 8%로 늘릴 방침이며, 자동차 생산량은 1,830만 대에서 3,300만 대로 연평균 12.6% 증가할 전망이다.
- (환경오염 개선) 풍력발전 설비를 '10년 3천만 kW에서 '15년 9천만 kW까지 늘리는 등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기 車 충전소를 4천 곳으로 확대하는 등 충전장비를 대폭 보급할 계획임.
- (지역 균형개발) 동부연해 질적 성장 추진, 동북 3성 개발 가속화, 서부지역 2라운드 개발 본격화 등 중국 전역의 균형 개발을 확대할 방침임.

II. 12.5 규획과 중국 철강산업의 변화

1. “철강 12.5 발전전략 건의”의 주요 내용

□ “철강 12.5 규획”은 현재 초안이 완성되어 각 부문의 의견수렴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.

- 공업정보화부(이하 공신부) 주도로 작성 중인 “철강 12.5 규획”은 현재 초안이 거의 완성되었으며, 관련 부서 및 철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려져 있음.
- 이하 “철강 12.5 규획”의 내용은 언론에 소개된 내용과 중국철강공업협회(CISA)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“철강 12.5 발전전략 건의”를 종합해 정리한 것임.
 - CISA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, 이 협회가 발표한 “철강 12.5 발전전략 건의”는 “철강 12.5 규획”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현재 중국 철강산업은 철강사 난립과 중복과잉 투자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음.

- 철강업체 수는 '00년 2,997개에서 '09년 말 11,777개로 급증했으며, 100만 톤 규모 이상 철강사 생산 비중도 '00년 83%에서 '10년 54%로 하락함.
- 11·5 규획 기간 낙후설비 도태를 추진했지만, '10년 조강생산능력은 '05년 4.2억 톤에서 82% 증가한 7.7억 톤을 기록함.
- 지역별로는 화북지역의 조강생산설비 비중이 34%를 차지하는 반면 수요 비중은 15~20%에 불과하며, 화남지역은 공급 부족이 발생함.
- 또한, 조강생산 증가에 따라 철광석 수입도 급증하였으며, 철광석 수입의존도는 '05년 51.5%에서 '09년 74.5%로 상승함.

□ 공업신식부는 12·5 규획 기간 구조조정을 통한 양적 성장 억제 및 질적 제고 가속화를 철강산업의 핵심 목표로 설정함.

-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공급과잉 억제를 위해 낙후설비 도태와 M&A 등을 통해 철강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이번 “철강 12·5 규획”의 중점 목표로 설정함.
 - 화북 및 동북지역은 신규 능력 확대를 억제하고 기존의 등량도태(等量淘汰) 정책보다 강력한 감량도태(減量淘汰)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.
 - ※ 등량도태는 생산설비를 건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기존의 낙후설비를 같은 규모만큼 폐기해야 하는 것이며, 감량도태는 신규 설비능력 이상의 낙후설비를 도태시켜야만 정부의 기준을 얻을 수 있는 것임.
 - 중남 및 화동지역은 등량도태를 원칙으로 연해 생산기지 등을 비롯한 신에 설비들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됨.
 - 중서부지역은 지역 철강 수요를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신규생산 능력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임.
 - 10대 철강사 생산 비중을 '10년 말 48.6%에서 '15년 말 60%로 확대하고 연해와 연강 생산 비중을 40%까지 늘릴 계획임.
- 12·5 규획 기간 양적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철강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강도 강재, 첨단 설비 기술 독자 개발 등을 비롯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춤.

-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《콘크리트구조설계규범》에 따르면 지금 까지 주로 사용된 400Mpa 철근 규격을 500Mpa로 높일 예정임.
- 정부는 12·5 계획 기간에 매년 에너지절감 목표를 발표·감독하여 '10년 말에 시행된 전기공급 중단과 같은 강제성 조치가 매년 말 실시할 수 있음.
- 이 외에도 생산·경영 합리화, 제품구조 다원화 등 중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들이 "철강 12·5 계획"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중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광석 자급률 제고, 전략적 비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.

- 중국은 철광석 자급률을 '10년 38%수준에서 '15년 45%까지 확대하며, 수입 철광석 중 소유권을 보유한 Captive mine 비중을 현재 15%에서 50%까지 확대할 계획임.
- 또한, CISA는 정부에 철광석 가격 급등 및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국가적 측면의 철광석 전략 비축 방안을 건의함.

<표 2> 12·5 계획 기간 중국 경제 및 조강 및 강재 수요 전망

	전망 1	전망2(기준)	전망3
연평균 GDP 증가율(%)	9~10	8~9	7~8
구조조정 및 발전방식 전환	현 상태 유지	점진적 달성	목표 달성
조강수요(억 톤)	7.5~8.5	6.7~7.5	6~6.7
강재수요(억 톤)	7.0~8.0	6.3~7.0	5.7~6.3
연평균 증가율(%)	5~8.3	2.6~4.6	0~2.3

자료: CISA (2011.2.21)

2. 12·5 계획 기간 주요 철강사의 발전전략

□ 중국 주요 철강사들은 12·5 계획 기간 대형화, 기술 혁신, 원료자급률 제고, 사업다각화 등의 발전 목표를 수립함.

- 철강사들은 향후 M&A 및 연해기지 건설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해 '15년에는 5천만 톤 이상의 초대형 철강사가 5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.

- 바오강, 안강, 우강, 샤오강, 허베이강철 등의 대형사들은 연해기지 건설 및 M&A를 통해 '15년 조강생산능력을 5천만 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.
- 그 외, 서우두, 산둥, 보하이강철 등도 기존의 설비능력 재보수와 M&A 등을 통해 '15년 3천만 톤 이상의 대형사로 성장할 전망이다.
- 이 중, 바오강, 우강, 안강, 서우두, 산둥, 르자오강철은 정부정책에 따라 연해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, 현재 1,850만 톤 수준인 연해신예기지 생산능력은 '15년 약 5천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.
- STS 주요 밀들 중 타이위안강철, 바오강, 주첸강철은 향후 3년 내 각각 600만 톤, 550만 톤, 300만 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임.

〈표 3〉 연해 신예기지 건설 계획

철강사	지역(최종 규모)	철강사	지역(최종 규모)
바오강	담강(20)	서우두	조비전(15)
우강	방성항(20)	산둥	일조(10)
안강	영구(12), 영덕*	샤오강	연운(15)

자료원: 포스코경영연구소 북경사무소 종합 정리 (2011)

주: *는 미발표, 단위: 백만 톤

○ 철강사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원료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철강사들은 해외 광산 투자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.

- 연해기지 건설에 발 맞추어 해외 광산 투자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, 안강과 우강은 '15년 철광석 자급률 목표를 각각 80%, 75%로 설정함.
- 광산 투자 외에 우강은 중점 정책 중 하나인 “저우추취(走出去)”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, 현재 광산, 코일센터 등 31개의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.
- 안강 역시 “안강 12·5 발전전략”에 ‘글로벌 경영’을 포함시켰으며, '10년에는 중국 최초로 해외(미국) 합작공장 건설을 발표한 바 있음.

- 수요산업 고도화에 따른 고급강재 수요 증가에 발 맞추어 고부가가치 강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고급강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.
 - 바오강은 AHSS용 CAL, CG 공정기술 독자개발을 목표로 삼고, 우강과 안강 역시 자동차용 강재를 전략제품화할 계획임.
 - 주요 대형사들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후판 및 선재 기술을 개발하여 API, 선급재 등 고급재의 기술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음.
 - GO의 경우 화룽, 서우두, 타이위안, 마안산강철 등도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우강, 바오강의 2강 체제가 향후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됨.
- 주요 철강사들은 철강 부문의 수익률 하락과 종합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, 자원개발, 서비스업 등 사업다각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.
 - 바오강은 “1+6”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12·5 기획 기간 철강산업 외 강재심가공, 기술서비스, 자원개발, 금융, 서비스, 화학공업 등의 6대 비철강부문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.
 - 우강과 서우두강철 역시 '15년 비철강부문 매출액 비중을 각각 30%, 46%로 설정하고 비철강부문 사업 확대에 주력할 계획임.

<표 4> 바오강의 “1+6” 발전전략

비철강부문	내용	자회사
강재 심가공	스틸캔, 선재제품, 자동차 부품	바오강금속 (宝钢金属)
기술 서비스	철강 생산설비 기술 개발	바오강공정 (宝钢工程)
자원개발	광산 개발 및 물류 (해상운송 포함)	바오강자원 (宝钢资源)
금융	보험, 은행, 증권, 펀드 등	화바오투자 (华宝投资)
서비스	호텔, 설비보수, 제품 포장, 요식업	바오강발전 (宝钢发展)
화학공업	석탄 화학공업	바오강화공 (宝钢化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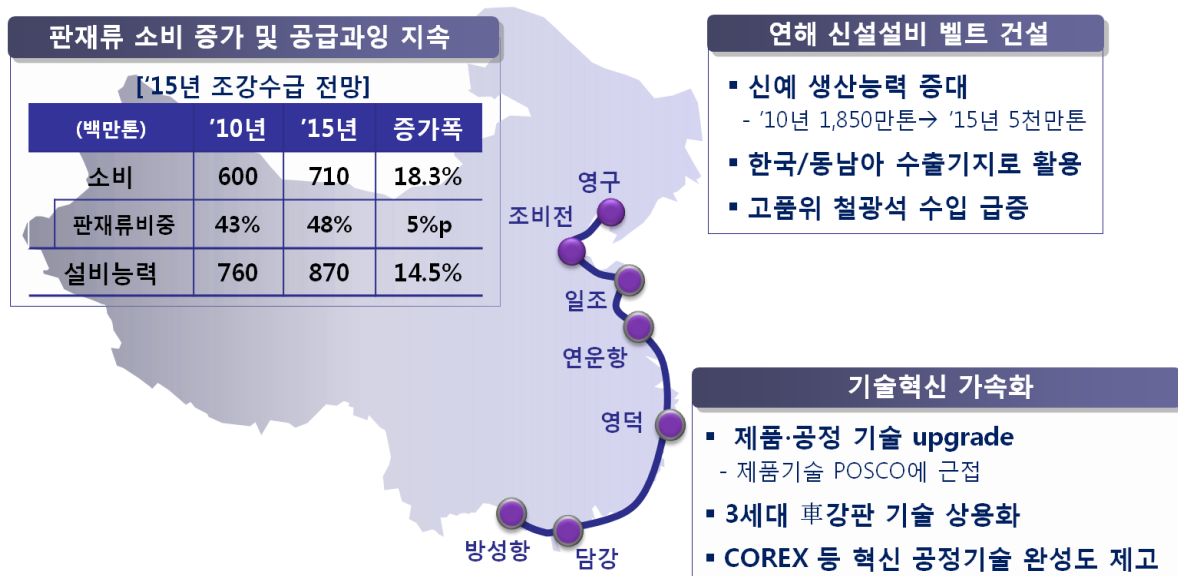
자료원: 포스코경영연구소 북경사무소 정리 (2011)

3. '15년 중국 철강산업의 모습

- '15년 중국에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력을 갖춘 초대형 경쟁사들의 글로벌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
- CISA의 보수적인 전망에 따르면, '15년 중국의 조강 소비는 약 7.1억 톤에 달하고 이 중 판재류 비중은 '10년 대비 5%p 증가한 48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.
 - 설비능력은 '10년 대비 14.5% 증가한 약 8.7억 톤에 달할 전망이다.
- 연해 신설설비 벨트 1기 공사가 대부분 완성되어 총 생산능력은 현재 1,850만 톤에서 약 5,000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며, 연해기지 건설계획을 종합하여 추산하면 최종 목표는 약 1억 톤에 달함.
 - 연해기지가 완성되면 우선 중국의 Over-flow 발생 시, 한국향 밀어내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- 또한,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POSCO제품과의 시장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.
 - 연해부두 건설을 통한 중국의 고품위 철광석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제품·공정 기술역량도 크게 제고되고, 특히 제품 면에서는 POSCO 제품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.
- 3세대 자동차 강판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COREX 등 혁신 공정 기술의 완성도가 제고될 전망이다.

<그림 4> 2015년 중국 철강산업의 모습



Ⅲ. 종합 및 시사점

□ 향후 5년 중국의 변화는 한국 기업, 특히 철강사들에게 다양한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임.

- 중국 정부의 분배 중시 및 불균형 시정 노력에 힘입어 중서부의 취약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, 투자 및 수출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소비의 경제적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경제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7대 신흥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고, 철강업 구조조정 또한 가속화할 전망이다.
-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은 크게 아래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.
 - ① 중국 철강소비 총량 증가세의 둔화
 - ② 중국 철강사의 경쟁력 제고 및 아시아향 수출 확대
 - ③ 임금의 상승 및 노사분규 증대 가능성
 - ④ 중서부지역의 철강수요 증가
 - ⑤ 자동차 및 가전용 등 고급강 소비 비중의 확대

□ 먼저 중국 철강사들의 도전 등 위협요인에 대해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함.

-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국내외 시장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.
 - 한국 및 동남아 수요가들의 Lock-in 강화, 중국 대형 철강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및 우호관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함.
- 중국 현지법인의 노사분규 가능성에 대비한 노무관리 강화가 필요함.
 - 1가구 1자녀 정책하에서 성장한 중국의 20대, 30대 노동자들의 특성이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노무관리 필요함.
- R&D 측면에서는 ‘Break-through’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, 중국 수요가들과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의 제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Break-through 기술이란 고품위 원료탄의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저품위 원료의 사용기술이나 3세대 자동차 강판 기술의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.

□ 한편 중국의 변화가 주는 기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 중국 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.

○ 중국의 지역별 발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진출을 고려해야 함.

- 광둥성이나 동북3성, 중서부 지역의 특성 및 발전단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- 철강을 예를 들자면, 광둥성의 경우 자동차강판, 동북3성의 경우 물류기지, 중서부의 경우 자동차강판용 유통기지 건설 등을 통해 거점을 확보한 이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.

○ 7대 신흥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사업기회의 발굴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
-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7대 신흥전략산업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함.

포스코경영연구소 북경사무소 정철호 (e-mail: chchung@posri.re.kr) 外

☞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,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.